

## 주거문화비교를 위한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생활 분석(II)\*

- 호주인의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영 심\*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과 호주인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의 주거 문화를 비교문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호주 교민의 주생활을 분석한 연구(I)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서 호주인의 주생활을 분석하였다. 연구 지역은 멜버른(Melbourne)으로 2004년 7월 19일 - 9월 24일 사이에 행하였다. 조사대상 가정은 모두 53가정이었고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고 사진 촬영과 실측을 병행하였다.

1. 조사대상 주택의 L·D·K 연결 유형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45.3%)가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았다. 부엌이 뒤편에 있는 것을 선호(73.5%)하였고 조리공간과 휴식공간의 통합을 선호(54.7%)하였다.

2.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68.0%)이 별도의 세탁실을 갖추고 있었고 대부분 부엌 가까이에, 뒷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곳에 위치하였다. 대부분(92.4%)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는데 3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거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란이었고 부부침실에서 주요 활동은 부부 취침과 독서 등이었다.

4. 가족취침은 모두 침대를 사용하였고 손님취침의 경우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등의 좌식 형태를 일부 볼 수 있었다. 가족의 TV 시청(82.6%)과 가사 관련 작업은 대부분 입식이었고 가족식사와 손님접대 역시 거의 입식이었다.

5. 조사대상주택의 바닥재는 거실(54.7%)과 부엌(39.6%)의 경우 나무, 침실은 카펫(64.2%), 욕실은 타일(84.9%)이 일반적이었다.

6. 조사대상자들의 41.5%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었고 37.7%가 신고 생활하였으며 20.8%가 양쪽을 병행하였다. 신발 수납장소는 대부분 침실 내에 있는 옷장이었다.

7.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뜨겁게 데운 공기를 공급하는 형식의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 :58.2%)이 많았고 이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았다. 바닥(온돌)난방에 대한 평가는 데우고 식히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부분적인 설치가 좋다고 평가하였다.

8. 거실(가족실)을 가족단란공간으로서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 평가하였고 또한 손님접대 공간으로서 제일 잘 꾸며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현재의 조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체조명보다 부분조명을 선호하였다. 주택의 선택 시에는 주택의 위치, 향, 평면계획, 전망 등을 고려하였고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높았다.

\* 본 연구는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